

무안, RE100·국가전력망 연계 미래산업 본격화

전력 공급·물류 접근·입지 조건 등 기업·산업 유치 최적화

김산 군수 “지역 중장기 전환 국면…K-반도체 산업 준비”

무안군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과 국가 전력망을 축으로 한 미래산업 입지 전략을 본격화에 나섰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유치를

를 감안해 전력·에너지 공급 구조, 물류 접근성,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며 ‘대전환 무안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 회의실에서 김산 군수(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이순영 동신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대응과 국가 전력망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입지전략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직접 PPA, 분산 에너지 활용 등 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입지전략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순영 교수와의 이번 정책검토는

K-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제조기업 유치를 염두에 두고 전력·공급구조,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 물류 접근성 등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살피는데 초점이 맞췄다.

무안군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배치가 전력·수요집중과 계통 부담을 가중 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국가 전력망과의 연계 여건을 갖춘 지역이 향후 산업 입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직접 PPA, 분산 에너지 활용 등

여건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입지전략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순영 교수와의 이번 정책검토는



무안군은 최근 군정 회의실에서 김산 군수(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이순영 동신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대응과 국가 전력망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입지전략 등을 점검했다.

꼽고 있다. 이는 송전 손실과 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전력망 효율화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물류 측면에서도 군은 항공·항만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신속하고 안정적 물류 환

경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향후 약 1652만 8925㎡(500만평) 규모의 부지조성을 통해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후공정까지 연계되는 첨단산업 기

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개선, 영산강 수계를 활용한 산업용수 확보, 무방류(ZLD) 시스템 적용 가능성 등 환경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운영 여건도 비교우위의 요소로 제시했다.

군은 이번 정책검토를 계기로 전문가·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RE100 기반 국가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율리 전남도와의 공조를 통해 산업 유치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군공항 이전, 시·도 통합 측면 등에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이다”며 “지역의 중·장기 대전환에 필요한 핵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기술·기업 지원 강화

육성위원회 기동…연구 성과 가시화·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완도군이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연구,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창업 생태계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제품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연구·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성과를 내는 복합 산업이어서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이 누적돼야 한다.

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해 전략 과제 도출·실행 체계를 마련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해조류 육상 생산·소재 표준화를 중심 추진 과제로 제안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와 산업체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포럼·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전문 지식을 교류해왔다.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협력해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마린드러스’에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 올해 ‘청년 블루푸드 창업 폐기지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3개 기업이 해조류 추출물 공복감 해소 음료와 해조류 기반 신소재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

으며, 6개 기업에는 반려동물 맞춤형 처방식·간식, 장 건강 기능성 파우더, 김 추출물 화장품 등 시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청년의 창업 교육, 기업 보육, 제품 개발, 경진대회 참여 등을 종합 지원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기업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연계해 연구·실습·창업으로 이어지는 ‘완도형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청년 정착 기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영화관, 설 연휴 반값으로 영화 상영

내달 7일·14~18일 50% 할인

강진군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군민 모두가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2월 7일과 2월 14~18일 ‘2026년 영화

보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

개관 2년차를 맞은 강진영화관은 군민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2만 1058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강진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성과에 부응하고,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나 50% 할인된 가격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보는 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2월을 맞아 평일에

도 주말과 동일한 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여러 계층의 군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며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복 기자 sa433225@gwangnam.co.kr



최근 열린 영암군 기관빨래방 2호차 전달식.

영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시동

친화기업 개소·빨래방 2호차

특히 HD현대상호의 기부와 영암군과 협사랑기금으로 운영되는 5t 규모 기관빨래방 2호차는 세탁기 6대, 건조기 3대를 갖췄다. 이미 운영 중인 1호차와 함께 2호차는 다음달부터 주 4회 각 읍·면을 돌며 취약계층의 세탁·세일즈 서비스를 제공한다.

The 기관빨래방 Premium은 삼호한마음 회관 3층에서 영암시니어클럽이 운영한다. 총 515.9㎡ 132석 규모로 어르신 포함 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객원 기자 모집

광주·전남지역의 종합일간지로 지역언론을 선도해온
광남일보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모집지역	인원
객원기자(신입/경력)	구례	○명
객원기자(신입/경력)	담양	○명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 1부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 2026년 1월 29일(목) ~ 2026년 2월 6일(금)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중흥동)

광남일보 총무국 ☎ 062-370-7093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합격자 발표는 추후에 개별 통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남일보

● 1004섬 신안 신의도 칠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 茶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홍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회사

광고·시장문의 062)370-7077